

의원정수 확대 국민이 반대·연동형 비례제 한국당이 반대

민주 "2월 임시국회 의결" 야3당 "거대야당 합의부터 해 와라"
광주 참여자치21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선거제 개혁 '산너머 산'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선거제 개혁안을 2월에 처리하자고 의결 시한을 밝히면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얼어붙은 연말 정국이 풀리기까지는 더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정계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윤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은 그간 민주당이 고수해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방식 도입' 주장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민주당은 개혁안 도출 시기와 최종 의결 시기를 못박은 것이 기존 입장보다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 위 중요 후 "기본 입장과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야 3당 측에서)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

씀이 있어서 2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입장 발표와 함께 야 3당은 농성을 해제하고 정계특위 논의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을 약속하기 전까지 단식을 병행한 농성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먼저 한국당을 설득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민주당과 야 3당만 펼칠 수 있는 일이고 민주당이 내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발 벗고 나서서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뒷집 지고 한국당이 어떤 반응이 나오나 기다려보자는 태도는 안 된다"고 말했다. 평화당 장병안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다시 한번 조속히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에 머리를 맞대기를 양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한국당을 뺀) 4당이 합의하면 선거제도 개혁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대표는 선거제 개혁 문제에서 거대야당의 태

도 변화를 촉구하며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이처럼 야 3당의 입장은 '100% 연동형'에는 미온적인 민주당과는 결이 다르다. 나아가 야 3당과 민주당이 간극을 좁히더라도 한국당 설득이라는 큰 산도 남아있다.

한국당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인 데다가 선거제 개혁을 권력구조 논의와 연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점점 찾기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갔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무슨 위기에 처했다"며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은 촛불 시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매일 오전 8시와 정오부터 한 시간씩 1인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제 단식 푸시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12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방문,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 건너간 김정은 연내 답방...북미정상회담 前도 불투명

청와대 "가능성 크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판단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제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내년 1~2월로 보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일지 이후일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김 위원장의 올 연말 서울 방문은 이제 어려운 것 아니냐"며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북한 측의 사정 등으로 연말 답방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키로 한 남북 정상 회담의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연내 답방을 추진했지만,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 북한 측은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방남에 따른 경호·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북미협상 난항으로 답방 시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공개하는 등 초기 답방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기대감을 키워왔던 청와대는 북한 회신의 물리적인 '마감 시한'으로 여겨졌던 지난 9일 "재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이제 그의 답방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결단만 한다면 현재로서도 연내 답방이 가능하다는 청와대 일각의 시각도 없지 않지만, 정부의 답방 준비 기간이 열흘가량 소요되는 데다 오는 17일이 김 위원장 선전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이기도 연말이 북한 내부의 총화(결산)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는 그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답방할 수 있는나로 관심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이 힘들어진 이유가 북미 간 협상 상황이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방문이 물 건너갔다고 판단하면 굳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답방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도 고려 요소로 제기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비롯한 성과를 낸 뒤 이를 토대로 서울을 방문하면 남북 서로가 주고받을 게 많을 수 있어서다. 해가 바뀌면 북한으로서도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올인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고려할 요소가 많은 답방에 전념할 여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이전 답방 여부에 대해 "우리는 내년 초도 열여놓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지금으로서 김 위원장이 올 연말까지는 답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렘브란트는 바울에게 무엇을 묻고 싶었을까



(249) 사도 바울

세상이 무섭고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연말 분위기를 따뜻하게 밝히는 것 중 하나는 이즈음 광주 곳곳을 활하게 비추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인 것 같다. 지난 주말 영화 '바울'을 관람한 것도 조금은 경건한 마음으로 세밀을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린 날 크리스마스 무렵 TV '주말의 영화'에서 '벤티' '십계' '소돔과 고모리' 등 기독교 영화를 방영할 때면 온가족이 한데 모여 보았던 시절이 계절 그리워지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기독교인들을 배척했다가 개종한 다음 그 자신 박해를 받고 참수형을 당한

사도 바울은 신앙이 조직화된 종교로 시작할 수 있도록 초기 교회의 모습을 구체화시킨 인물. 십자가를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해석하고 교회의 상징으로 만든 주인공이기도 해서 영화를 통해 만난 사도 바울과 함께 '길고 긴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것은 영화 감상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열아홉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소모, 판화, 그리고 유화로 백여 점에 달하는 자화상을 남겼던 렘브란트(1606-1669)는 '사도 바울풍의 자화상'(1661년 작)을 그리기도 했다. 렘브란트는 왜 사도 바울풍의 자화상을 그렸을까? 수많은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신의 그림과 존재에 대해 질문 던지기를 반복한 그가 바울을 통해 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어쩌면 자신의 페르소나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립을 좋아했고 이 대립의 표현을 매우 강렬하게 다듬어서 '명암법의 대가'라 불렸던 렘브란트



렘브란트 작 '사도 바울풍의 자화상'

는 이 작품에서도 대상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를 깊은 입체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는 '렘브란트의 화폭은 두 개의 구성을 동시에 담고 있는데 하나는 재현된 신체나 물체를, 다른 하나는 빛의 거처이다'라는 언급으로 '명암법에 대한 최고의 지성'임을 찬탄했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친환경기술이전사업 모니터링업체 & 친환경양식 ONE-STOP창업지원 사업 컨설팅 대상자 모집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주관하는 2018년 「친환경기술이전사업」 모니터링업체 & 「친환경양식 ONE-STOP창업지원 사업」 컨설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11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친환경기술이전사업 모니터링업체 모집

- 1. 모집업체** 30개소(이내)
- 2. 신청자격**
 - 2017년, 2018년 친환경기술이전교육을 수료하고 양식을 창업한 자(업체)
 - 바이오플라크 방법으로 새우 등을 양식하고 있는 자(업체)
-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기간 : 2018. 11. 27. ~ 12. 14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 대상업체 선정 : 2018.12. 17 ~ 21(개별통지)
- 4.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사진 3×4cm부착)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5. 모니터링 대상 업체선정 및 모니터링 횟수**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개별 통지
 - 모니터링 횟수는 총 4회(이내)이며 지원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 6. 일정 및 방법**
 - 일정 : 2018. 12. ~ 2019. 3.
 - 방법 : 매월 1회 전문가 업체 방문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사업 컨설팅 대상자 모집

- 1. 모집분야** 5개분야/ 250명
 - 양식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양식 생산기술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양식 시설 컨설팅 지원
 - 행정 서비스 지원(인·허가사항)
 - 수산물 유통 컨설팅 지원 ※ 최대 4회 신청 가능/중복신청 제한
- 2. 신청자격**
 - 예비양식창업자 및 창업희망자
 - 수산업종사자 또는 경영자
 - 2018년 친환경양식기술이전교육 수료자 등
- 3.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기간 : 2018. 11. 27. ~ 12. 14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경남/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교육생선발 : 2018.12. 17 ~ 21 (개별통지)
- 4. 제출서류 및 선발**
 - 지원 신청서(사진 3×4cm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 제출한 지원서를 교육생 선발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발 개별 통지
- 5. 컨설팅 품종** 10대 전라품종(해수부지정)
 - 품종 : 새우, 민물장어, 관상어, 전복, 해조류, 능생어, 해삼, 넙치, 갯벌참굴, 참다랑어
- 6. 컨설팅 지원 방법 및 장소/일정**
 - 지원방법
 - 신청자가 분야별 컨설턴트를 지정 신청하면 1:1 맞춤형 컨설팅지원
 - 1인 최대 4개 분야(4회) 신청 가능
 - 컨설턴트 별 1회 이상 중복 신청 불가
 - 컨설팅 장소 :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컨설팅 일정 : 2018. 12. 24 ~ 2019. 2. 28

문의처 |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201호 ☎ 055) 642-5762 · 이메일 : ksh040@fipa.or.kr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 062) 220-0588 · 이메일 : yys1318@hanmail.net

※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포털사이트에서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 검색 후 공지사항에서 필히 확인바랍니다.